

이코노 & 비즈 피플

이재형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250개사 공동 네트워크 구축”



“250여 회원사의 공동 이익과 권익 보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사 간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29일 한국광산업진흥회 제5대 회장에 취임한 이재형(61) 동부그룹 부회장은 “진흥회의 설립 목적

공동 생산·구매·개발·마케팅으로 동반 성장

10월 ‘국제 라이트비전엑스포’ 성공 개최 만전

은 국내 광산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 보호,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경쟁력 있는 분야별로 공동 생산 및 구매, 공동 연구개발, 공동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경기 불황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업과 회원사들은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공동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선 호남광역경제권 대표 주력산업인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 프로젝트 사업화 주관기관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

이다. 그는 “광산업 육성 3단계 사업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올해 말까지 종료되고, 오는 5월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2단계 사업이 추진된다”며 “정부 정책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국내외적 위상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광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의 전문가 풀을 구축해 진흥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은 물론 국내 광산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는 오는 9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국제광산업협

회 연례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고, 10월 ‘국제 라이트 비전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이 회장은 “광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 통계 조사 분석, 정보 교류도 적극 추진해 광산업 육성 리더십 조직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북고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삼성그룹 비서실에 입사해 삼성물산 런던지사장·정보통신 부사장·미주 총괄부사장 등 30여년간 삼성그룹에서 근무했다. 2010년 동부그룹으로 옮겨 동부CNI·동부라이트·동부LED CEO를 역임하고, 지난해부터 동부그룹의 차세대 신수종 전략사업인 반도체·IT 총괄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기 동물들 봄나들이

지난 28일 톨립축제가 한창인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시크릿가든에서 스킨·사막여우·다람쥐 원숭이 등 올해 태어난 에버랜드 동물원의 아기 동물들이 봄채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제조업경기 부진의 늪

3월 업황 BSI 83...4월 86으로 나아질 듯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론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4~26일 광주·전남지역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4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3월 기업경기조사(실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3월 업황BSI와 4월 업황전망 BSI는 83, 86으로 전달보다 각각 10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올 1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이 작은데다 여전히 기준치(100)를 훨씬 밑돌고 있어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업황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뜻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매출(수출·내수판매), 생산, 신규수주, 가동률 등의 지수가 전달보다 소폭 증가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23.2%로 가장 많았고 내수부진(14.1%), 불확실한 경제 상황(9.9%), 수출부진(8.4%), 환율(5.7%), 자금부족(5.4%) 등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3월 업황BSI가 4월 업황전망BSI는 71, 75로 전달보다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해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자산운용사 순익 29% 줄어 펀드 수탁과 감소...2190억

자산운용사의 지난해 누적 3분기(4~12월) 당기순이익이 수탁과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 가까이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82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190억원으로 전년동기(3095억원)보다 905억원(29.2%) 줄었다.

수탁과 감소로 영업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508억원(4.1%) 줄었는데 비해 영업비용은 인건비와 외부 용역수수료 등 판매관리비 상승으로 100억원(1.2%)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자산운용사의 펀드순자산액(NAV)은 277조2000억원으로 전년말의 284조8000억원에 비해 7조6000억원(2.7%)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자산운용사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를 웃도는 운용사는 25개사였다.

연합뉴스

작년 당기순익 1363억

光銀 정기 주총...주당 571원 배당

광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363억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9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16층 이사회실에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 당기순이익 1363억원과 주당 571원(배당률 11.42%), 총 282억원의 배당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53기(2011년 1월1일~2011년 12월 31일)재



무제표를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

사외이사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노부호(65·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씨와 김대승(64·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씨가 신규 선임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달부터 SSM 영업제한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2회 의무휴업과 야간 영업시간 제한이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조례가 다음달 2일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일제히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SSM은 4월 8일 첫 의무휴업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한다. 또 다음달 3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insurance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various insurance benefits.

Advertisement for a postcard contest by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featuring a red mailbox and the slogan '편지는 사랑이죠!'.